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13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12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3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 강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
 - 주요국 국채금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하락
-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자금은 8월중 순유출
 - 국내은행의 대외차입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국제국 국제총괄팀 과장 권나은(759-5749), 팀장 양양현(5737)
외환시장팀 과장 윤태영(5740), 팀장 김신영(5967) (원/달러 환율 관련)
자본이동분석팀 과장 윤승완(5716), 팀장 유재현(5773) (외국인 증권자금 관련)
Fax. (02) 759-5736 E-mail. ifpteam@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2023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I. 국제금융시장 동향

1 금리

□ 선진국 국채금리(10년물)는 상승세 지속

- 미국은 견조한 경제지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우려 등으로 상승

*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 등으로 9.5일 WTI는 \$86.69까지 상승(8월 이후 +5%)

- 독일 및 영국은 고물가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

*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7월 6.2 → 8월 6.1(예상 6.0)

□ 주요 신흥국 국채금리도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받으며 상승

- 튀르키예는 정책금리 인상(17.5%→25.0%*, 8.24일)으로 큰 폭 상승

* 시장 예상치 20.0%를 크게 웃뽀

주요국 국채금리(10년)

(기말 기준, %)

	21년	22년	23.7월(A)	8월	9.8일(B)	B-A(%p)	
선진국	■ 미국	1.51	3.87	3.96	4.11	4.26	0.30
	■ 일본	0.07	0.42	0.61	0.65	0.66	0.05
	■ 독일	-0.18	2.57	2.49	2.47	2.61	0.12
	■ 영국	0.97	3.67	4.31	4.36	4.42	0.11
신흥국	■ 한국	2.26	3.74	3.77	3.83	3.89	0.12
	■ 중국	2.78	2.84	2.66	2.58	2.67	0.01
	■ 인도	6.45	7.33	7.18	7.16	7.21	0.03
	■ 인니	6.38	6.94	6.25	6.38	6.55	0.30
	■ 브라질	10.84	12.69	10.81	11.17	11.29	0.48
	■ 멕시코	7.57	9.04	8.82	9.29	9.54	0.72
	■ 러시아	7.84	9.38	10.24	10.58	11.03	0.79
	■ 튀르키예	23.00	9.60	17.95	20.57	22.52	4.57
	■ 남아공	9.81	10.81	11.53	11.74	11.95	0.42

자료: Bloomberg

2 주 가

□ 선진국 주가는 하락

- 미국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고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하락
- 독일은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 S&P Global 종합 PMI: 7월 48.6 → 8월 46.7(예상 47.0)
 S&P Global 서비스 PMI: 7월 50.9 → 8월 47.9(예상 48.3)

□ 신흥국 주가도 대부분 하락

- 중국은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 리스크의 부각 등으로 하락

* GDP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1Q 4.5 → 2Q 6.3(예상 7.3)

- 반면 튀르키예는 경제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

주요국 주가

		21년	22년	23.7월(A)	8월	9.8일(B)	(기말 기준) B-A 변동률(%)
선진국	■ MSCI 지수	3,232	2,603	3,064	2,986	2,949	-3.8
	■ 미국 DJIA	36,338	33,147	35,560	34,722	34,577	-2.8
	■ 일본 Nikkei225	28,792	26,095	33,172	32,619	32,607	-1.7
	■ 독일 DAX	15,885	13,924	16,447	15,947	15,740	-4.3
	■ 영국 FTSE100	7,385	7,452	7,699	7,439	7,478	-2.9
신흥국	■ MSCI 지수	1,232	956	1,047	980	974	-7.0
	■ 한국 KOSPI	2,978	2,236	2,633	2,556	2,548	-3.2
	■ 중국 SHCOMP	3,640	3,089	3,291	3,120	3,117	-5.3
	■ 인도 SENSEX	58,254	60,841	66,528	64,831	66,599	+0.1
	■ 인니 IDX	6,581	6,851	6,931	6,953	6,925	-0.1
	■ 브라질 BOVESPA	104,822	109,735	121,943	115,742	115,313	-5.4
	■ 멕시코 BOLSA	53,272	48,464	54,819	53,021	52,505	-4.2
	■ 러시아 MOEX	3,787	2,154	3,074	3,228	3,143	+2.3
	■ 튀르키예 ISE100	1,858	5,509	7,217	7,918	8,325	+15.4
■ 남아공 ALSH	73,709	73,049	78,978	74,954	73,653	-6.7	

자료: Bloomberg

3 환 율

- 미 달러화(DXY 지수 기준)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미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상당폭 강세
 - 유로화는 미국에 비해 부진한 유로지역 성장세가 부각되면서 약세
- 신흥국 통화는 대부분 약세
 - 중국 위안화는 미·중 통화정책 차별화 속에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 부각 등으로 달러당 7.3위안을 상회하는 약세를 나타냄
 - 러시아 루블화는 서방 국가의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 등으로, 남아공 란드화는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약세

* 재정수지(억란드): 6월 367 → 7월 -1,438

주요국 환율

(기말 기준)

	21년	22년	23.7월(A)	8월	9.8일(B)	B-A 변동률 ¹⁾ (%)	
선진국	■ 미 달러 (DXY) ²⁾	95.7	103.5	101.9	103.6	105.1	+3.2
	(연준 지수) ³⁾	115.3	121.4	118.3	120.7	121.2 ⁵⁾	+2.5
	■ 일본 엔	115.1	131.1	142.3	145.5	147.8	-3.7
	■ 유로	1.138	1.070	1.100	1.084	1.070	-2.7
	■ 영국 파운드	1.352	1.210	1.284	1.267	1.246	-2.9
신흥국	■ JPM 지수	52.6	49.9	48.9	48.0	47.1	-3.7
	■ 한국 원	1,188.8	1,264.5	1,274.6	1,309.8	1,333.4	-4.4
	■ 중국 위안 ⁴⁾	6.348	6.906	7.151	7.288	7.340	-2.6
	■ 인도 루피	74.30	82.69	82.23	82.74	83.01	-0.9
	■ 인니 루피아	14,210	15,460	15,078	15,234	15,353	-1.8
	■ 브라질 헤알	5.571	5.285	4.726	4.956	4.987	-5.2
	■ 멕시코 페소	20.53	19.50	16.74	17.04	17.59	-4.8
	■ 러시아 루블	75.08	73.21	91.81	95.70	97.97	-6.3
	■ 튀르키예 리라	13.231	18.714	26.912	26.683	26.848	+0.2
	■ 남아공 란드	15.93	17.04	17.82	18.90	19.15	-6.9

주: 1) 미 달러화는 지수 기준, 여타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강세(+), 약세(-)]

2)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상 지수

3) 미 연준 작성 주요 26개 교역국 통화 대상 지수(broad)

4) 역내시장 기준(CNY) 5) Fed의 지연고시로 9.1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Ⅱ. 국내 외환시장 동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 국채금리 상승 및 경기 연착륙 기대 강화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

○ 원/엔 환율 및 원/위안 환율은 소폭 상승

원화 환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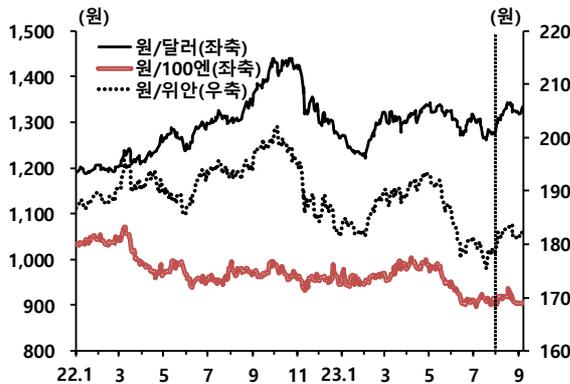
(기말기준, 원)

		21년	22년	23.7월(A)	8월	9.8일(B)	(B-A) 변화율 ²⁾ (%)
주요 환율	■ 원/달러	1,188.8	1,264.5	1,274.6	1,321.8	1,333.4	-4.4
	■ 원/100엔	1,032.4	945.6	899.6	905.4	906.1	-0.7
	■ 원/위안	186.63	181.58	178.34	181.17	181.27	-1.6

주: 1) 원/달러, 원/위안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은행간 거래의 종가 기준, 원/100엔 환율은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15:30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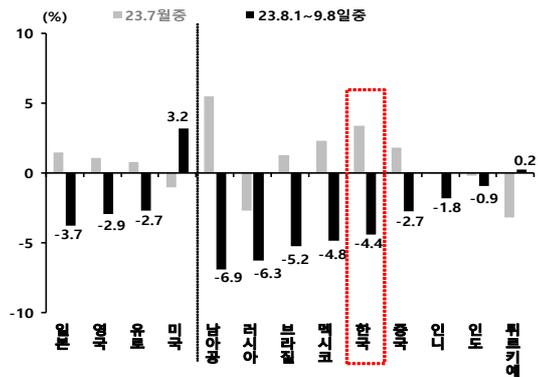
2) 기간중 미달러화, 엔화(100엔) 및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강세(+), 약세(-)]

원화 환율



자료: ECOS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¹⁾²⁾³⁾



주: 1) 미국은 달러화지수(DXY) 기준, 여타 국가는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강세(+), 약세(-)]

2) 유로화·엔화·파운드화는 뉴욕시장 16:30 기준

3) 위안화는 역외시장 기준(CNH)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2 원/달러 환율 변동성

□ 8월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전월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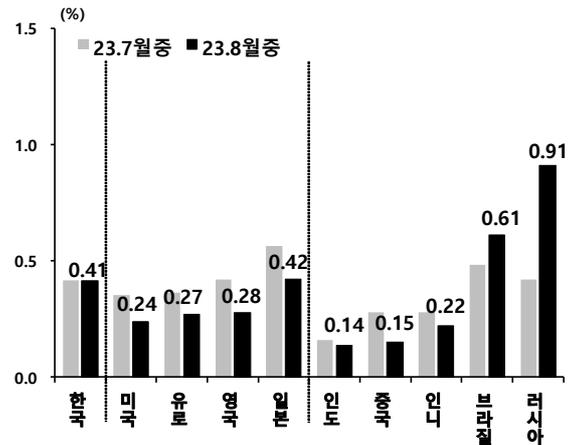
전일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기간중 평균, 원, %)

	23.6월	7월	8월
변동폭	6.6	5.4	5.5
변동률	0.51	0.42	0.41

자료: ECOS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¹⁾



주: 1) 전일대비 변동률, 미국은 달러화지수(DXY)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3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는 양호한 외화자금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선물환 매입 등으로 상승

○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 금리 상승*(+12bp)에 영향 받으며 상승

* 국고채금리(3년물, %) : 23.7월말 3.68 → 9.8일 3.80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기말 기준, %)

	21년	22년	23.7월(A)	8월	9.8일(B)	(B-A) 변동폭
■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	0.67	-1.15	-2.10	-2.08	-1.96	+14bp
■ 통화스왑금리(3년)	0.88	3.00	3.00	2.99	3.07	+7bp

자료: 한국자금중개, Tullett Prebon

4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 8월중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318.0억달러)에 비해 31.7억달러 감소한 286.3억달러

* 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

** 외환거래는 연초에 크고 여름 휴가철인 8월과 연말에 작은 특성이 있음

○ 현물환 거래와 외환스왑 거래가 각각 14.9억달러 및 13.3억달러 감소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¹⁾²⁾

(기간중 일평균, 억달러)

	21년	22년	23년	기간중 일평균		8월 ^p	
				6월	7월	8월	8월
■ 현 물 환	104.6	108.1	143.1	153.7	135.8	120.9	(-14.9)
(원/달러)	85.4	90.4	108.9	106.9	105.9	99.2	(-6.7)
(원/위안)	19.2	17.6	34.2	46.8	29.9	21.6	(-8.2)
■ 선 물 환	5.2	6.0	10.6	16.5	10.0	7.2	(-2.8)
■ 외 환 스왑	133.0	152.0	144.8	148.3	145.7	132.4	(-13.3)
■ 기타 파생 상품 ³⁾	25.9	30.0	28.6	32.7	26.5	25.9	(-0.6)
■ 합 계	268.7	296.1	327.0	351.2	318.0	286.3	(-31.7)

주 : 1)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기준 2) ()내는 전월대비 증감액, p는 잠정치

3) 통화스왑, 옵션 등

5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 8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 전환

○ 주식자금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전환

○ 채권자금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만기도래, 낮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전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¹⁾

(기간중, 억달러)

	21년	22년	23년	기간중				
				4월	5월	6월	7월	8월
■ 전 체	387.1	56.3	168.5	32.5	114.3	29.2	10.4	-17.0
(주 식 ²⁾)	-174.4	-60.9	65.3	9.1	24.8	-3.1	4.4	-9.1
(채 권 ³⁾)	561.5	117.2	103.2	23.3	89.6	32.3	6.0	-7.9

주: 1) 결제일 기준

2)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 포함(단, ETF·ELW·ETN 등은 제외)

3) 상장채권 장내·외거래 기준(RP 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

6

대외 외화차입여건

- 8월중 국내은행의 차입 가산금리는 중장기의 경우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단기는 차입기간 장기화 등으로 소폭 상승
 - 8월 단기차입 가산금리(23bp)는 지난해 평균(38bp)보다 낮고 금년 평균(22bp)과는 비슷한 수준
-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을 지속

대외 외화차입여건

(기간중 평균, bp)

	22년	23년 ^P	4월	5월	6월	7월	8월 ^P
■ 대외차입 가산금리 ¹⁾²⁾							
<단 기 ³⁾ >	38 (191)	22 (131)	18 (170)	33 (168)	26 (82)	18 (103)	23 (121)
<중장기 ⁴⁾ >	68 (4.0)	92 (4.6)	83 (3.8)	74 (2.9)	94 (5.1)	92 (4.3)	74 (4.0)
■ 외평채 CDS 프리미엄 ⁵⁾	42	39	45	43	35	31	31

주: 1)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수출입 등 8개 국내은행 기준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만기 1년 이하 차입금액 가중평균(O/N 제외), SOFR 대비, ()내는 가중평균 차입기간(일)

4) 만기 1년 초과 차입금액 가중평균(RP 포함), 건별 기준금리(SOFR 등) 대비, ()내는 가중평균 차입기간(년)

5)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CMA Datavision)

<참고 1>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21년말	22년말	23.7월말	8월말	9.8일	최근 1년간		
							최고치	최저치	
금	미국(10년)	1.51	3.87	3.96	4.11	4.26	4.34	3.31	
	미국(2년)	0.73	4.43	4.88	4.86	4.99	5.08	3.56	
	SOFR(3개월)	0.09	4.59	5.37	5.40	5.41	5.42	3.02	
	일본(10년)	0.07	0.42	0.61	0.65	0.66	0.67	0.22	
	독일(10년)	-0.18	2.57	2.49	2.47	2.61	2.75	1.65	
	영국(10년)	0.97	3.67	4.31	4.36	4.42	4.75	3.01	
	이탈리아(10년)	1.17	4.72	4.10	4.12	4.35	4.79	3.61	
	그리스(10년)	1.34	4.62	3.76	3.78	3.96	5.08	3.55	
	리	한국(10년)	2.26	3.74	3.77	3.83	3.89	4.62	3.16
		중국(10년)	2.78	2.84	2.66	2.58	2.67	2.95	2.54
인도(10년)		6.45	7.33	7.18	7.16	7.21	7.51	6.96	
인니(10년)		6.38	6.94	6.25	6.38	6.55	7.67	6.18	
브라질(10년)		10.84	12.69	10.81	11.17	11.29	13.79	10.52	
러시아(10년)		7.84	9.38	10.24	10.58	11.03	11.03	8.41	
EMBI+ Spread		386	375	360	376	378	486	356	
주 가	미국(DJIA)	36,338	33,147	35,560	34,722	34,577	35,631	28,726	
	일본(Nikkei225)	28,792	26,095	33,172	32,619	32,607	33,753	25,717	
	독일(DAX)	15,885	13,924	16,447	15,947	15,740	16,470	11,976	
	영국(FTSE100)	7,385	7,452	7,699	7,439	7,478	8,014	6,826	
	한국(KOSPI)	2,978	2,236	2,633	2,556	2,548	2,667	2,155	
	중국(SHCOMP)	3,640	3,089	3,291	3,120	3,117	3,395	2,893	
	인도(SENSEX)	58,254	60,841	66,528	64,831	66,599	67,572	56,410	
	인니(IDX)	6,581	6,851	6,931	6,953	6,925	7,318	6,566	
	브라질(BOVESPA)	104,822	109,735	121,943	115,742	115,313	122,560	97,926	
	러시아(MOEX)	3,787	2,154	3,074	3,228	3,143	3,269	1,917	
VIX	17.2	21.7	13.6	13.6	13.8	33.6	12.9		
환 율	미 달러화								
	DXY지수	95.7	103.5	101.9	103.6	105.1	114.1	99.8	
	연준지수	115.3	121.4	118.3	120.7	121.2 ¹⁾	128.3	117.6	
	일본엔화	115.1	131.1	142.3	145.5	147.8	150.1	127.8	
	유로화	1.138	1.070	1.100	1.084	1.070	1.124	0.959	
	영국파운드화	1.352	1.210	1.284	1.267	1.246	1.314	1.069	
	한국원화	1,188.8	1,264.5	1,274.6	1,309.8	1,333.4	1,439.9	1,220.3	
	중국위안화	6.348	6.906	7.151	7.288	7.340	7.340	6.716	
	인도루피화	74.30	82.69	82.23	82.74	83.01	83.23	79.14	
	인니루피아화	14,210	15,460	15,078	15,234	15,353	15,773	14,647	
브라질헤알화	5.571	5.285	4.726	4.956	4.987	5.480	4.726		
러시아루블화	75.08	73.21	91.81	95.70	97.97	100.78	57.56		
기 타	WTI유(\$/bbl)	75.2	80.3	81.8	83.6	87.5	92.6	66.7	
	금(\$/oz)	1,829.2	1,824.0	1,965.1	1,940.2	1,919.1	2,050.3	1,622.4	

주: 1) 지연고시로 9.1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참고 2>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기간중, 억달러)

	주식	채권	합계
2021년	-174.4	561.5	387.1
1월	-23.9	13.2	-10.7
2월	-28.6	89.9	61.2
3월	-25.8	83.5	57.7
4월	5.9	27.4	33.3
5월	-82.3	45.9	-36.4
6월	-4.4	87.6	83.2
7월	-30.6	55.7	25.1
8월	-44.5	15.6	-28.8
9월	24.2	46.0	70.1
10월	-26.5	22.0	-4.5
11월	25.2	26.2	51.4
12월	36.9	48.5	85.4
2022년	-60.9	117.2	56.3
1월	18.1	31.6	49.7
2월	-18.6	34.9	16.4
3월	-39.3	5.4	-33.9
4월	-42.6	4.7	-37.8
5월	-12.9	20.6	7.7
6월	-30.1	22.3	-7.8
7월	1.6	35.4	37.0
8월	30.2	-13.1	17.1
9월	-16.5	-6.4	-22.9
10월	24.9	2.8	27.7
11월	21.0	6.3	27.4
12월	3.1	-27.3	-24.2
2023년	65.3	103.2	168.5
1월	49.5	-52.9	-3.4
2월	7.0	-5.2	1.8
3월	-17.3	18.1	0.8
4월	9.1	23.3	32.5
5월	24.8	89.6	114.3
6월	-3.1	32.3	29.2
7월	4.4	6.0	10.4
8월	-9.1	-7.9	-17.0